

유가증권시장, 3분기 매출액 늘었지만 영업이익 38% 급감

한국거래소, 올 3분기 결산실적 발표
누적 매출액 2093兆... 0.29% 상승
전기전자 등 14개 업종 영업이익 줄어
누적 순이익 흑자기업 26개社 감소

올해 3분기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들의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급감해 사실상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됐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23년 3분기 결산 실적'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 12월 결산 상장기업 613개(금융업 등 제외)사의 연결기준 3분기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감소했다.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 동일 기간보다 0.29% 상승한 2093조6486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업이익은 94조6982억원, 순이익은 70조121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37.98%, 41.06%씩 급감했다. 전체 매출액의 9.1%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제외해도 연결 매출은 2.51%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19.95%, 30.03%씩 감소했다.

(12월 결산법인 2023년 3분기(누적) 결산실적) (단위: 억원, %)

구분	개별기준			연결기준		
	2022년 1~9월	2023년 1~9월	증감률	2022년 1~9월	2023년 1~9월	증감률
매출액	11,123,866	10,784,616	△3.05	20,876,878	20,936,486	0.29
영업이익	724,189	268,192	△62.97	1,526,891	946,982	△37.98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861,752	691,722	△19.73	1,568,137	892,251	△43.10
순이익	682,167	685,737	0.52	1,189,684	701,218	△41.06

/한국거래소

업종별로는 운수장비, 기계 등 3개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한 반면 전기전자, 운수장고업 등 14개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줄었다. 또한, 운수장비, 기계 등 5개 업종은 순이익이 증가한 반면 전기전자, 운수장고업 등 12개 업종은 순이익이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3분기 연결부채 비율은 112.46%로 지난해 말 대비 0.27%포인트 감소했다. 613사 중 3분기 누적 순이익 흑자기업은 472사(77.00%)로 전년 동기(498사) 대비 26사 감소했다. 이 중 흑자를 지속한 기업은 427개사로 전체 상장사 중 69.66%

를 차지했다. 흑자로 전환한 기업은 45개사(7.34%)다.

적자기업은 141사(23.00%)로 지난해 동일 기간(115사)보다 26사 늘었다. 이 중 적자가 지속된 기업은 70사로 전체 상장사 중 11.42% 수준이며, 적자 전환 기업은 71사(11.58%)다.

금융업 41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3.33%, 1.92%씩 증가해 모두 수익성이 개선됐다. 증권·은행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1.04%, 6.23% 늘었고, 순이익은 14.84%, 9.97%씩 올랐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상장 앞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올 3분기 영업손실 69억 기록 투자자 '몸값 부풀리기' 우려

광물가격 하락 등에 영업적자
투자설명서에는 2분기 실적만
비싼 공모가에 악재 겹쳐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상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스닥 상장 기업 파도가 기업공개 당시 공모가를 부풀렸다는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역시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 그룹의 자회사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오는 1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하반기 마지막 대어로 기대를 모았으나 수요 예측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데다 3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상장을 앞두고 부담을 안게 됐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지난 14일 올 3분기 매출이 2400억원, 영업손실이 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3%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고 공시했다. 상장 전 상반기까지 155억원의 흑자를 냈으나 1개 분기 만에 7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실적 공개 이후 김병훈 대표는 주주서한을 통해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분기 영업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광물 가격 하락, 원자재 채고 부담 등으로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공모 투자설명서에는 2분기 실적만 나와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지난 8~9일 진행된 일반청약이 끝난 다음에 3분기 실적을

공개했다며 이례적인 대표의 주주서한은 파도 시기 상장 논란이 불거진 것에 따른 면피성 발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IPO 과정에서 사업 성격이 다른 기업을 비교 기업으로 선정, 높은 가치 평가를 받은 점도 논란이 됐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비교기업으로 포스코퓨처엠, 엘앤에프, 코스모신소재, 그리고 중국의 CNGR 등을 선정했으나 이들 대부분은 양극재 업체로, 전구체 생산 사업을 영위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사업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양극재 기업 위주로 비교 그룹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희망 공모가 밴드를 높게 제시했다.

이에 따라 3만6200원으로 결정된 현재 공모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경준 혁신 IB자산 운용 대표는 "일부 기관투자자가 주관사로부터 공모가 3만원을 유력한 가격으로 안내받았고, 이후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서 3만원이 확정 공모가라는 소문이 퍼져 대부분이 3만원에 수요예측 참여했는데, 공모도 금지 발표로 기존 그룹주들의 주가가 급등하자, 확정 공모가를 상향 조정했다"며 "공모가가 원래도 비싼 것으로 평가받아 흥행에 실패하였는데 회사의 적자 전환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이 됐다"고 설명했다.

파도에 이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역시 몸값 부풀리기 논란이 일어나면서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공동주관사 NH투자증권도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원관희 기자 wkh@

와이바이오로직스, 기술이전·신규 후보물질 발굴 '박차'

내달 상장... 총 150만주 공모

다음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와이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통해 파이프라인 기술이전과 신규 후보물질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바이오로직스는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상장 이후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와이바이오로직스는 2007년 설립된 항체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이다.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국내외 파트너사와 다양한 바이오의약품을 공동개발한다.

와이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상장에서 총 150만주를 공모한다. 공모 예정가는 9000원~1만1000원으로, 최대 165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10~16일까지 기관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 후 오는 23~24일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일은 12월 5일이다.

주관사인 유안타증권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한다. 풋



박영우 와이바이오로직스 각자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이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백옵션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가격이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하면 상장 주관사에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다.

회사측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인 경우 풋백옵션이 의무는 아니나, 자발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하고, 권리기간도 6개월을 제시했다"며 "상장 후 추가 흐름에도 자신감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와이바이오로직스의 경쟁력은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은 완전인간항체 라이브러리 '와이맥스(Ymax)'-ABL'

이 핵심인 항체 발굴 기술과 T-세포 이중항체 플랫폼 '앨리스(ALiCE)'가 주축이다.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최근 다국가 임상 1·2a상을 성공적으로 마친 항체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아크릭솔리담(YBL-006)'과 T-세포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YBL-013', 단일클론항체 'AR062' 등이 있다.

와이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을 계기로 기존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과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5건의 기술이전을 성사했고, 12건의 공동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앞서 와이바이오로직스는 프랑스 피에르파브르와 중국 3D메디슨에 각각 신규 단일항체와 이중항체 후보물질을 기술이전했다.

박영우 와이바이오로직스 각자대표는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바이오의약품의 핵심요소인 우수한 항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내겠다"며 "지속적인 기술이전과 파트너십 확장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이루는 항체 신약 전문기업의 모델이 되겠다"라고 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국공인회계사회, 'ESG 인증포럼' 개최

TCFD 권고안 지침서 강독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달 21일에 '제7회 ESG 인증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TCFD 권고안 이행 및 비금융 기업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지침서 강독회'로 개최된다. 박경상 한영회계법인파트너와 허규만 안진회계법인파트너, 심재경 삼일회계법인파트

너, 정재욱 삼정회계법인파트너가 발표를 맡아 지침의 주요 내용을 참가자들과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포럼은 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사전신청은 마감됐으며, 추후 해당 영상을 회계연수원 및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다.

김영식 회장은 "ISSB에서 발표한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1, S2)

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 및 미국 증권거래소(SEC)의 기후 공시 규정안에서 TCFD 권고안의 요구사항들을 준용하고 있어 TCFD 권고안은 지속가능성 공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본 회에서는 TCFD 권고안의 적용을 위해 가장 활용도가 높은 두 지침서의 공식 한글번역을 제공하고 강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가능성 공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국거래소, 유럽 우량기업 상장유치 활동

보건산업진흥원-IPO 전문기관과 진행
상장절차·준비사항 맞춤형 컨설팅

한국거래소는 유럽(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지역에서 현지 우량기업 상장유치활동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후원), 기업공개(IPO) 전문기관과 함께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소는 15일 오전 11시 뒤셀도르프에서 현지 기업인과 금융관계자 등 약 7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자본시장 홍보 및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 개최했다. 뒤셀도르프는 글로벌 의료기기 혁신의 본산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전시회 'MEDICA'의 개최 장소로 상장유치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날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에서 유럽 우량기업을 면담해 코스닥시장 상장 절차 및 준비사항 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민홍기 코스닥시장위원장은 "코스



민홍기 한국거래소(KRX) 코스닥 시장위원장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 '2023 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닥은 의료기기·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분야의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이라며 "이번 상장유치활동은 유럽 우량기업의 코스닥시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국내 투자자에게 해외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